

# “설원 빛낸 10대 꿈나무들”...전남, 다관왕 배출

### 크로스컨트리 이윤주, 클래식 2.5km·프리 3km·복합경기서 3관왕 스키 알파인 강다현·조다운 2관왕...바이애슬론, 개인전도 메달 획득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일차인 19일, 전남 선수단이 다수의 다관왕을 배출하며 선전했다. 전남은 이날 금메달 10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를 추가하며 목표 종합 8위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

스키 크로스컨트리에서 이윤주(나주 다시초 6년)가 3관왕에 등극했고, 조다운(화순제일중 3년)이 2관왕에 올랐다.

스키 알파인에서는 강다현(여수삼일중 3년)이 2관왕에 올랐고, 전남 바이애슬론 랍신과 예카테리나도 전남 혼성계주 금메달에 이어 개인전까지 정상에 올랐다.

지난 18일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에서 열린 여초부 클래식 2.5km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던 이윤주는 이날 프리 3km에서 10분 45초 4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추가했다.

이어 이윤주는 복합 경기에서도 20분 5초 8로 1위에 오르며 총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다현은 이날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스키 알파인 슈퍼대회전 여중부 결승에서 44초 42의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다.

앞서 전남 대회전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강다현은 이날 슈퍼대회전까지 석권하며 대회 2관왕에 등극했다.

조다운(화순제일중 3년)은 여중부 프리 7.5km에서 23분 56초 7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정상에 올랐고 이어 복합에서 41분 51초 7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18일 열린 클래식 5km경기에서 다른 선수와 부딪히며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던 조다운은 이날 프리와 복합 금메달로 2관왕에 오르며 전남의 아쉬움을 달렸다.

이밖에도 크로스컨트리 여고부 프리 10km에서 전다경(전남체고 1년)이 36분 05초 8을 기록하며 동메달을 획득했고, 복합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하며 총 2개의 메달을 따냈다.

크로스컨트리 여초부 프리 3km와 복합에서는 이지호(화순초 5년)가 각각 11분 48초 6, 22분 29초 9의 기록으로 두 개의 동메달을 더했다.

전날 혼성계주 정상을 차지했던 바이애슬론에서도 개인전 메달 획득이 이어졌다.

남자 일반부 스피리트 10km에서는 지난 대회 4관왕을 차지했던 티모페이 랍신이 24분 44초 6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추가하며 다시 한번 최강자의 면모를 보였다.

여자 일반부 스피리트 7.5km에서도 예카테리나 암바꾸모바가 21분 58초 2로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관왕을 기록했다.



강다현이 19일 동계체육대회 스키 알파인 슈퍼대회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크로스컨트리 여중부 프리 7.5km에서 조다운(왼쪽 두번째)이 금메달을 획득한 뒤 시상식에서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랍신과 예카테리나를 비롯한 전남 바이애슬론 선수단은 20일 집단출발 경기에 출전해 다시 한번 금빛 질주를 선보일 계획이다.

전남도체육회 송진호 회장은 “전국동계체전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전한다”며 “전남 체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 남은 경기에서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

##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장 선출

송진호(사진) 전남도체육회장이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송 회장은 18일 평창훈련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시·도체육회장들의 만장일치로 신임 협의회장에 선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협의회 임원 선출을 비롯해 2024년도 협의회비 결산 승인, 2025년도 협의회비 결정 등의 안건도 함께 논의됐다.

전임 회장인 양희구 강원도체육회장은 “송진호 회장은 탁월한 리더십과 식견을 갖춘 인물로, 전국 지방체육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송 회장은 “전국 체육 발전을 위해 각 시·도체육회의 의견을 모으고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며 “특히 지역 체육의 균형 발전과 체육인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는 지역 체육 활성화와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다.

송 회장은 전국 17개 시·도체육회를 대표해 지방 체육 지원 확대 및 정책적 협력을 주도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구례서 노고단배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개최

### 21~27일 구례 공설운동장

전남에서 축구 꿈나무들의 협동심과 스포츠맨십을 기르는 유소년 동계 축구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2025 구례 노고단배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이 오는 21~27일 구례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U12 부문 32팀과 U11 부문 26팀 등 총 58개팀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경기는 8인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1차 풀리그(4팀 1조)를 통해 가려진 조별 순위(승점-페어플레이점수-추첨순)에 따라 각 1~4위팀끼리 2차 리그를 실시한다.

광주·전남에서도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U12에 광주FC U-12·광주JK 풋볼U12·광주월곡FC가 나서며 U11에 광주FC U-12·전남구례북초·광주JK 풋볼U12·그린·광주JK 풋볼U12·엘로우가 출전한다.

순천에서도 같은 기간 ‘2025 순천만국가정원배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이 열린다.

구례 페스티벌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경기는 팔마보조구장과 팔마유소년구장 등 순천팔마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지며 U12 부문 32개팀과 U11 부문 27개팀 등 총 59개팀이 나선다.

지역에서는 전남순천중앙초·전남드래곤즈U12·광양제철남초·전남순천시나인티나인FC(99FC)·여수미평초·광주베스트윌레브U12·전남영광FC U12가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 ‘레전드’ 완주 vs ‘여기사’ 보령...통합 챔피언 가린다



왼쪽부터 레전드리그 우승팀 수소도시 완주와 여자바둑리그 우승팀 보령머드 <한국기원 제공>



### 23일 대방건설배 챔피언스컵...이창호 9단 앞세운 레전드 팀 2연승 도전

시니어와 여자 프로기사가 반상에서 자존심 대결을 나간다.

쏘팔코사늘 레전드리그 우승팀 수소도시 완주와 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 챔피언인 보령머드는 23일 ‘2025 대방건설배 레전드 vs 여자바둑리그 챔피언스컵’에서 맞붙는다.

‘바둑 황제’ 이창호 9단이 이끄는 완주는 지난해 11월 열린 레전드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정규시즌 1위 팀 경기 고양특례시를 2-1로 꺾고 창단 첫

해에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이창호는 레전드리그 데뷔해에 다승왕과 최우수선수(MVP)를 휩쓸었다.

완주의 2·3지명 선수인 권호진·박승문 8단도 큰 활약으로 팀 우승에 일조했다.

김민서 4단과 김다영 5단, 이슬주 3단이 팀을 이룬 보령은 여자바둑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평택 브레인시티에 2-1 극적인 뒤집기를 연출하며 정상에 올랐다.

2018년 시작된 레전드와 여자바둑의 챔피언스컵에서 여자팀이 6승 1패로 앞서 있다.

여자 우승팀이 6년 연속 승리하다가 지난해 레전드 우승팀 yes문경이 여자 우승팀 H2 DREAM 삼척을 꺾고 처음 우승컵을 차지했다.

이창호를 앞세운 레전드 팀이 여자팀을 다시 꺾고 2연패를 달성할 수 있겠지가 관심이사.

대방건설배 챔피언스컵은 우승 상금 700만원, 준우승 상금 300만원이다.

제한 시간은 각자 20분에 40초 초읽기 5회씩이다. /연합뉴스

## 농심배 5연패... ‘절대 1강’ 신진서 손에 달렸다

### 박정환, 중국 리쉬안하오에 역전패

한국이 농심 신라면배에서 베팅에 몰렸다.

한국 대표팀 네 번째 주자 박정환 9단은 19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26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최종 3라운드 12국에서 중국의 네 번째 주자 리쉬안하오 9단에게 252수 만에 불계패를 당했다.

이로써 한국은 랭킹 1위 신진서 9단만 살아남았지만, 중국은 리쉬안하오와 덩하오 9단 2명이 기다리고 있다.

이날 흑을 잡은 박정환은 중반 전투에서 좌변 백진을 파괴하며 인공지능(AI) 예상 승률 90%를 웃도는 필승 국면을 만들었다.

그러나 우하위 백진에 침투한 흑돌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큰 착각을 일으켜 순식간에 형세가 역전됐다.

이후 박정환은 80수 가까이 두며 재역전을 노렸

으나 끝내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돌을 던졌다.

20일 열리는 13국에서는 신진서가 리쉬안하오와 대결한다.

상대 전적은 2승 2패로 팽팽히 맞서 있다.

한국 바둑의 ‘절대 1강’인 신진서는 22회 신라면배부터 25회 대회까지 최종 주자로 나서 파죽의 16연승을 기록해 한국의 4년 연속 우승을 견인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제2회 농심 백산수배 세계바둑독시니어최강전 2라운드 9국에서는 한국의 마지막 주자 유창혁 9단이 중국의 두 번째 주자 차오다위안 9단에게 264수 만에 백 6집만 패를 당했다.

김중수(1승 1패)·서능욱(1패)·조훈현(1패) 9단 등 출전 선수 4명이 모두 탈락한 한국은 중국에 우승컵을 넘겨줬다.

신라면배 우승 상금은 5억원이고 백산수배 우승 상금은 1억8000만원이다. /연합뉴스

즐거움

# 문화산책

## 광주예술의전당

###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체임버 시리즈 I 'Cello Moments'**

일시 : 2025-02-21(금)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문의 : 062-613-8241

**GAC 공모전시 탄소중립, 이끼로 말하다!** 원예복지협동조합

일시 : 2025-2-21(금)-2025-3-23(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